제5강 황동규의 「김수영 무덤」

(1, 2교시)

황동규 (1938~)

1. 황동규에 대하여

1938년 서울 출생.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냄. 아버지가 소설가 황순원. 1958년 『현대문학』에 「즐거운 편지」등이 추천되어 등단. 시집으로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등이 있음.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조를 지닌 초기시로부터, 침착하고 담담한 묘사로 이행되는 중기 이후의 시까지, 끊임없는 변모를 보이며 한국 시의 한 날개를 달아주었다.

2. 김수영에 대하여

1921년 서울 출생. 선린상고를 거쳐 도일, 1941년 도쿄상대에 입학했으나 학병 징집을 피해 귀국하여 만주로 이주, 8·15광복과 함께 귀국하여 시작(詩作) 활동을 하였다. 김경린, 박인환 등과 함께 모더니스트로서 주목을 끌었다. 초기에는 모더니스트로서 현대문명과 도시생활을 비판했으나, 4·19혁명을 기점으로 현실비판의식과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쓴 그는 1945년 『예술부락』에 「묘정(廟庭)의 노래」를 발표한 뒤 마지막 시 「풀」에 이르기까지 200여 편의 시와 시론을 발표하였다. 48세에 교통사고로 요절하였다.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다. 그리고 모든 살아 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본질이 꿈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수영, 「實驗的인 문학과 정치적 자유」

3. 시 전문 감상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김수영 무덤

첫째 갈피

나무들이 모두 발을 올린다.
지루하고 조용한 가을비
내리며 내리며 저녁의 잔광을
온통 적신다.

우산을 잠시 묘비에 세워놓고
젖은 마음을 잠시
땅 위에 뉘어 놓고
더 붙들 것이 없어 우리는
빗소리에 몸을 기댔다.
등에 등을 대어주는 빗소리.

빗소리 속에도 바람이 부는지
풀들이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가지들이 흔들리고
이 악물고 그대가 흔들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풀들이 흔들린다.

뿌리 뽑힌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갈피

서울 근교의 산이 모두 얼어 있다.
한편에 밀려 남아 있는 그대의 언덕
하늘은 자꾸 어두워가고
아직 남은 말들은 하나씩 힘을 풀고
눈송이로 떨어진다
내려앉은 눈송이들
머리에도 어깨에도 손등에도 마음 위에도.

살에서 나를 털어버리고 싶다.
그리곤 시린 살만이 남아…… 살의 시린 채찍 소리,
휙 휙 사면에서 점점 자라는
눈송이들, 한 송이 두 송이 열 송이 또 열 송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공중에서 몇 번 멈칫대다
하나씩 고개 들고 흰 새가 되어,
아 발톱까지 흰 새들.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불도 켜 있다.
지평선의 작은 한 뼘
나머지는 밟고 있다 온통 얼은 발들이.
쉬우리 짧은 금이 지우기 쉬우리
아이들이 외로울 때 무심히 지우리.
흰 새들이 불을 끄고 다시
눈송이로 떨어지는 이 언덕.

4. 시 감상의 포인트

① 황동규-김수영 … 시인이 다른 한 시인을 쓰는 경우
② 인용의 에스컬레이터 … 해설자인 또 다른 시인 박영근은 김수영과 황동규의 산문 및 시를 교차하여 인용하며, 그 의미를 천천히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③ 전화(轉化) : 옮겨서 변한 것. 변화해서 다른 상태가 된 것. "의미가 전화하다." → 생성(生成)

5. 난해한 구의 해석 방법
"그 의미가 간단치 않은 이 구절을 나는 김수영의 시적 생애의 어떤 의미와 더불어 읽는다."(교재의 p.56)

6. 참고문헌
김 현,「황동규를 찾아서」,『시인을 찾아서』, 민음사, 1972
진형준,「황동규론」,『문학사상』, 1988. 12
유지현,「황동규 시 연구」, 고려대대학원, 1992

7. 참고작

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